

경북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거점 조성”

2차 이전 앞두고 유치전략 점검 40여 개 전략기관 유치군 선정 첨단제조·물류 등 4대 벨트 추진 정주여건 개선·인센티브 논의 “지역산업 동반성장 모델 구축”

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와 관련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경북 이전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유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기존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40여 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산업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



9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2차 공공기관 경북 이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거점 조성을 목표로 ▲첨단 제조 혁신 벨트 ▲스마트 물류 벨트 ▲에그리테크 벨트 ▲생활·교육 중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제조 혁신 벨트는 반도체·이차전지·원전·SMR 산업 기반을 활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5개 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스마트 물류 벨트는 경북 혁신도시의 교통·우정·조달 기능과 연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체국물

류지원단 등 13개 기관 유치에 나선다.

에그리테크 벨트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생명·푸드테크 연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생활·교육 중심축은 문화·환경·복지 분야 기관과 교육·연수기관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유치위원들은 토론에서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정주 여건 개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국장들도 관계부처와 이전 대상기관,

노조 등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앞으로 이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유치 희망 기관별로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 논의를 확충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정치인, 출향 인사, 주민 등과 유치활동을 펼치고,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정주기반 설명회,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철영 공동 유치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며 “새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북의 강점을 적극 알리려라”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여름밤 ‘심야책마당’ 열려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심야책마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주문화관1918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책과 음악,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야간 독서문화 행사로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행사 기간 경주문화관1918 잔디광장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심야책광장’이 마련된다. 또한 경주 지역 동네책방 7곳이 참여하는 ‘심야책마켓’과 2300여 권의 도서를 갖춘 경주시립도서관의 비취달린 도서관도 운영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울산시

반구천 암각화 브랜드화 시동

울산시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갖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울산대학교 내 울산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상표(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자인 개발 사업을 통해 시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보고회에는 시와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위원,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 사업 추진 배경과 상표 개발 방향, 디자인 주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울산=이도식 기자

김해시

주택구입 이자 지원 확대

김해시가 올해부터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출산가구까지 넓히고, 경남도와 공동으로 500가구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만원, 출산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대출잔액 한도와 지원 금액이 각각 달라진다. 김해시는 해당 사업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291가구에 1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신산업 육성 전담조직 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9일 ‘혁신성장부’ 출범식을 열고 신산업 육성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경제청은 앞서 6월 1일부로 2026년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핵심은 ‘혁신성장부 신설’과 ‘원스톱 민원 체계 구축’ 두 가지다. 기존 2본부 4부 12과 체제를 2본부 1실 4부 14과로 확대했으며, 정원은 110명으로 늘었다. 새로 신설된 혁신성장부는 투자전략본부 산하에 전략산업과와 기업혁신과를 배치해 운영한다. 투자 유치 기능도 재편됐다. 전략산업유치과를 투자유치기획과로 바꾸고 투자유치1·2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맡겼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이도식 기자

영주 소백예술제, 공연·전시로 물든다

내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진행 시민회관 공연장·전시실 활용

영주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시민과 공유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 제33회 소백예술제를 개최한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공연과 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저력을 선보이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영주시민회관 공연장과 전시실, 서천둔치 일원에서 제33회 소백예술제를 개최한다. 소백예술제는 문학과 공연예술, 시각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대표 종합 예술제로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인협회와 연극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무용협회, 연예예술인협회 등 8개 지역 예술인 단체가 참여한다. 각 단체는 공연과 전시를 통해 창작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 8개 협회가 참여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소백예술제 개막식 공연모습)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일 오후 7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지역 출신 가수 송수영의 식전공연을 비롯해 색소폰 연주자 김민재와 팝 소프라노 김예은, 팜페타 그룹 카르디노, 트로트 가수 정혜린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공연 프로그램도 연일 이어지고, 전시 프로그램 풍성하게 마련됐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보성군, 외국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전남도동권익센터와 캠페인 전개 감자 수확 능가 5곳 찾아 홍보

보성군은 전남도동권익센터와 함께 외국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군과 전남도동권익센터는 지난 8일 회천면 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남도동권익센터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

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성군과 전남도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은 회천면 일대 감자 수확 능가 5곳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 얼음물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무더위 속 건강 관리를 도왔다.

특히 ▲수시로 물 마시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무더운 시간대 작업 강도 조절하기 등 여름철 농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관광공사, 관광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이달 중 웹포스터·SNS 등 홍보 관광 공공데이터 33종 개방 안내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관광 분야 공공데이터의 민간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공사는 6월 중 웹포스터·SNS·언론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현재 개방 중인 관광 공공데이터 33종의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활용 수요로 연결되도록 데이터 종류·접속 경로·QR 코드 등 구체적인 안내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공개 대상 데이터는 다누리별차, 부산 시티투어, 유니크메뉴, 비짓부산패스, 관광기업지원센터 등 공사 주요 사업 관

련 정보를 비롯해 부산 관광 산업 동향 분석, 문화 관광 해설, 채용 정보 등 관광 산업 전반 및 시민 생활과 접점이 있는 데이터까지 총 33종이다. 공사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별도 절차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

공사는 관광기업지원센터와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데이터 활용이 관광 서비스 개발, 콘텐츠 제작, 관광 산업 분석 등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시민·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포항시·포스텍, 양자 연구거점 조성

국제관서 선도 센터 개소 2029년까지 총 237억 투입

경북도·포항시·포스텍은 9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양자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센터 문을 열고, 글로벌 양자 연구 거점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센터 개소식에 경북도·포항시·포스텍·한국연구재단과 하버드대·싱가포르 국립대(NUS)·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국내외 주요 연구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2029년까지 총 237억원을 들여 하버드대·싱가포르국립대 양자기술센터(CQT) 등 세계적 연구 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양자 얽힘 생성·제어 기술 개발, 양자 컴퓨팅 핵심 기술 연구,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개소식에 연구책임자인 이길호 포스텍 양자글로벌협력센터장이 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포스텍-하버드대 간 국제 공동 연구 협약(MOU)도 맺었다.

이어 경북도-포항시-포스텍은 ‘글로벌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양자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글로벌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거점 조성 및 지역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이들 기관은 협약으로 ▲글로벌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거점 조성 및 추진 체계 구축 ▲연구 개발·국가 공모 사업 공동 발굴·추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